

# 에덴의 동쪽에서 서평

20181310 야간1B반 노승현

이 책의 원래 제목은 『Waiting For The Land』이다. 그리고 역자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에덴의 동쪽에서』로 변경하였다. 필자는 이 둘을 합하여 “에덴의 동쪽에서 그 땅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이 책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오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이라는 내러티브상의 문제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정한 주제로 이 책 전체의 핵심논제를 서술한다면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과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근처에 까지 도달했으나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성취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로 암시하고 그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 결국 종말론적인 그 땅을 에덴의 동쪽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먼저 저자가 논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지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서술한 후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마칠 것이다.

먼저 이 책을 거시적 관점으로서 어떻게 저자가 논제를 이끌어 가는 지를 제시하자면 저자는 9개의 챕터를 통해 서술한다. 먼저 오경의 이야기 흐름을 자세히 서술하고 구약과 신약성경 안에 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이야기 흐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서술한다. 첫째는 오경의 고유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둘째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용해온 용어로 서술해 나간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오경의 플롯과 범위 그리고 구조를 서술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과 그 땅을 기다리며 라는 것을 오경 내러티브 안에서의 주제임을 서술한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내러티브의 연속성과 개념적 유형을 서술한다. 그는 왕권 유형의 개념적 유형이 오경 전체의 연속성을 이끌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챕터까지는 오경의 각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위에 1~3챕터에서 주장한 플롯과 범위 그리고 구조와 연속성을 토대로 서술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챕터에서는 위 챕터들을 토대로 광야 신학으로 정리를 하며 오늘날의 광야 신학을 적용시킨다. 광야 신학이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며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그 땅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번엔 미시적 관점에서 서술해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첫째 방법으로 토라로서의 오경을 서술하고 그 유효범위를 정하는데 그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전체의 유효범위라고 말한다. 둘째 방법으로는 기독교적 오경의 유효 범위인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읽으며 그것이 토라로서의 오경과도 잘 부합한다고 말한다. 마치 복음서의 핵

심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오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안의 머무름,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플롯으로 삼으며, 오경내의 내러티브상의 문제와 구조 범위를 다룸으로서 오경의 각 권들이 이 안에서 읽혀짐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왕권 유형이 모세오경의 연속성과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왕권 유형이란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전투와 그것에 대한 왕권의 선포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유형을 말한다. 저자는 이 왕권유형을 토대로 오경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읽을 때 저자는 “승리의 왕이 그 봉신 백성 한가운데 위치한 회막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것이다”라고 읽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창세기인데, 먼저 창세기의 플롯을 설정한 후에 그 플롯을 통해 내러티브 안에 생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과 형제들 간의 갈등의 해결을 애굽에서 해결되는 동시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창세기의 톨레돗이라는 것을 통해 아담 안에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과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주와 복이라는 관점에서 아담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옮겨감을, 질서에서 혼란으로 관점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어 인간세계에는 사망이 왔지만, 결국 그 사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길 수 없으며 다시 회복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출애굽기 내에 세 가지 갈등을 통해 다른 것을 아바드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것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바로를 아바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바로를 위해 건축을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건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막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자는 이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직은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내러티브상의 레위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에 대한 것이다. 레위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안에 있지만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한 답이다. 레위기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챕터에서는 민수기는 1-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적인 모습을 그리며 11-25장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을 그리므로 병렬구조로 그것을 문제를 표출하고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1세대와 2세대 모두의 이야기이며 저자는 결론적으로 “뒤를 잇는 모든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에 의해 규정되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토라에 순종하며 약속된 유업을 받기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덟 번째 챕터 신명기는 신명기 선후행 내러티브 모두를 연결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오경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며 둘째로는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신명기는 내러티브보다는 교훈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며, 저자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된 미래를 향한 문턱에 서있는 백성이요, 자신

들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처럼 모세의 “이 토라”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정체성을 평가받게 될 민족이며, 약속된 미래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모세의 죽음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땅의 중요성을 상대화시킴으로써 그 땅 안에서 죽는 것이나 거기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야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한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광야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함으로 마무리 하는데 먼저 저자는 땅의 소유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삶으로 오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야 신학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이 세상이 결코 아니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소망 가운데 열망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돈이 먼저인가? 행복이 먼저인가? 돈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현대 사회는 돈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본다. 이 책은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땅의 약속의 성취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얻을 수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얻는 다고 말하며 그 땅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오경을 통해 제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의 동쪽(세상-필자 주)에서 그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돈이라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하면 오경에 나오는 땅의 약속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땅의 것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위험을 막아준다.

또한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는 긍정의 과잉과 ‘자아’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성과를 올려야만 하는 사회, 완결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sup>1)</sup> 이 책은 그러한 삶을 방지하도록 하기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종말’이 있기 때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과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이 긍정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의 한계도 발견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땅을 기다리는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종교적인 제의에 더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 특성상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못하는 이원론적인 영성이 다분히 짙은 상황 속에서는 잘못 읽혀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포인트가 작금의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라는 틀 안에 갇혀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경 내러티브를 통해서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이러한 면에서 이 책에서의 한계가 있다.

---

1) 한병철, *Mudigkeitsgesellschaft* (Berlin: matthes & seitz, 2010); 김태환 역, 『피로사회』(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2), 86-87.